# 교통사고 예방 후부반사판 무상보급

## 교통안전공 전북본부, 대형 화물차 대상… 주간 16.3% · 야간 21.2% 사고감소 효과

하계 휴가철 교통사고 감소 특별대책 중 하나로 도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후부반사판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무상보급이 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한상윤)는 지난 31일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북화물공제조합, 교통봉사단체 등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화물차 운전자격 적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부반사판 및 졸음운전 예방용품(비타민, 생수) 등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 적재 및 하역의 반복 등에 따라 훼손되거나 탈색 등으로 인해 반사효과가 떨어지는 후부반사판이 많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후부반사판의 사용연한은 평균 4년으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는 비율이 높아 후미 추돌사고 위험이 심각하다.

공단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 조사에 따르면 후부반사판을 부착할 경우 주간 16.3%, 야간 21.2%의 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화물차는 심야시간대 운행이 많기 때문에 후방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전방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후부반사판을 부착하는 것이 타인을 위한 배려이자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연일 폭염에 등장한 살수차** 연일 무더위와 더불어 폭염이 이어진 지난 31일 전주 풍남문광장 일원에서 전주시 완산구청에 관계자들이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리며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있다.

제66대 권순범 검사장 취임식이 지난 31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실시된 가운데 권순범 검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강자에겐 엄격 약자에겐 자비"

## 권순범 신임 전주지검장 취임식

권순범(50 · 사법연수원 25기) 제66대 전주지검장이 지난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전주지검은 국가검찰인 동시에 전북도민이 존립 근거인 지역 검찰"이라며 "지역 안정과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는 없는지, 이를 치유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안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권 검사장은 또 "전북은 법조3성을 배출한 곳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강자에는 엄격하고 약자에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 통쾌하다, 참 인간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검사장은 인권을 중시하는 검찰과 행복한 직장 · 인간적인 일터를 위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신임 권 검사장은 서울상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 검찰에 입문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연구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정책기획과정,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검 검찰연구관(미래기획 · 형사정책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강력부장 · 인권부장 등을 지냈다.

권 검사장은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형사법제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높은 책임감과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조직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기자

# 한옥마을 공동체 공유공간서

## 8월 볼거리 · 체험거리 가득

한옥마을 인근 공동체 공유공간에서 8월 한 달 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일 송천한라비발디 그루터기 공동체의 요리체험을 시작으로 △'특별한 날'의 페이스페인팅 △'업싸이클링'의 화분을 활용한 업싸이클링 용품제작체험 △'건강한이야기'의 요리만들기 체험 △'온우리옷'의 한복소품 만들기 체험 △'행복한제작소'의 부채, 엽서 캘리그라피 체험 △'4050소셜스토리'의 커피를 이용한 천연세제 만들기 등이다.

이와 관련 온두레공동체 공유공간(풍남동 풍우경로당 2층, 완산구 은행로 14-1)은 △20명 정도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갖춘 회의실 △요리체험이 가능한 조리공간 △작품전시 및 체험활동이 가능한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달 전주지역에서 활동중인 공동체들이 모여 체험이나 전시, 요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민의 노래' 새로 짓는다

## 시, 친일행위 논란 김해강 시인 작사곡 개정 추진

## 시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작품 제작 검토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최근 심화되는 한일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반일감정 고조 등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친일행적으로 논란이 된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1950년대에 만들어져 전주시민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현재의 노래와는 달리 새로운 전주시민의 노래를 현시대에 어울리는 정서와 선율을 담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음악 · 문학 등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제작자를 선정해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된 노래는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와 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고귀한 선조들의 넋과 얼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창업자 호에서 딴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유래된 동산동의 명칭을 주민 찬반 설문조사와 시민공모, 주민 투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여의동'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시는 또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에 의해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과 일본의 관직명 등에서 유래된 일제잔재인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급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직급명칭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시 내부적으로라도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다가교에 설치된 일제잔재인 석등에 대해서는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과거 교육과 신앙, 독립과 민주주의의 염원을 갖고 다가교를 건너던 전주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우리는 역사를 기념하는데 머물지 않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해 스스로의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전주시민의 노래'를 모든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 전주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전주시의 대표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군산해경, 선박정기검사 미수검 어선 특별단속

##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안전 항해의 기본이 되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 또는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3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어선)'에 대해 다음 달 4일 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가진 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56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와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 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은 단속에 앞서 관내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19척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 검사기관과 적극적인 계도 홍보활동을 펼친 후 집중 단속에 실시하고 같은 기간 어선과 낚싯배의 불법증 · 개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어선을 건조 개조하거나 이를 발주한 경우나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 기관, 설비 등을 임으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김정훈 기자

# 예수병원의 전설 박영훈을 아시나요?

## 예수병원 의학박물관 작은 전시회 개최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피난민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예수병원에서 봉사한 박영훈 박사를 기념하는 작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격동의 세월에 예수병원을 지킨 전설,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 의사 박영훈 박사의 삶을 주제로 8월1일부터 열리는 이 작은 전시회는 박영훈 박사의 조카 박은순 여사가 소중하게 보관한 큰아버지 박영훈 박사의 유품을 예수병원의학박물관에 기증해 이뤄졌다.

1952년부터 예수병원에서 외과와 신경외과 의사로 봉사한 박영훈 박사는 수많은 일화를 남기며 예수병원의 전설로 불렸다.

1959년에 9살 여아의 소장을 막고 있던 1063마리의 회충을 제거한 의사가 바로 박영훈 박사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병원은 전국적인 기생충 박멸운동을 펼쳤다.

그는 기생충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주역이다.

또한, 1972년에 뇌출혈로 사망해 예수병원 선교사묘역에 영면하고 있다.

한편,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KB국민은행과 작은도서관 조성 협약

전주시는 지난 31일 KB국민은행(전북지역영역그룹대표 한상견)과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업무협약 및 선풍기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KB국민은행,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대표 김수연)과 인후비전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KB국민은행이 지난 2008년부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함께 문화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공모를 통해 전주시를 포함한 5곳이 선정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인후비전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로 했다. 시는 인후비전작은도서관 새단장을 위해 도서관 운영 전반을 지원키로 했다.

인후비전작은도서관은 7월부터 리모델링을해 가구 및 시설 등을 교체하고 오는 9월 중 재개관할 예정이다.

한상견 KB국민은행 전북지역영역그룹대표는 "작은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독서활동과 문화활동을 즐기고, 여름철 무더위로 고통 받았던 분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 도시의 위대함은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헌신과 사랑 등 고귀한 정신의 가치에 달려 있다. 전주는 해마다 꾸준히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온 얼굴 없는 천사와 천사시민들과 함께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꿈꾸고 있다"면서 "뜻깊은 후원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사람 냄새 나는 전주를 만드는데 함께해주신 KB국민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확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출산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데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1대 질환에서 19대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상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다.

신청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가 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사람 중심' 동학혁명 의미 재조명

## 전주시, 청원공감한마당 개최… 원도연 원광대 교수 특강

전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강당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25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원도연 원광대학교수가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사적 의미'를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 △21세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최근 방영된 드라마 '녹두꽃' 해석 등에 대해 강의했다.

원 교수는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전봉준을 비롯 농민들이 주체로 일어나 동학혁명 또는 갑오 농민전쟁이라 부르며,반봉건 · 반외세를 표방해 일어난 역사상 최초의 민족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혁명의 주요 전적지인 완산공원과 곤지산 일대에 기념 공간을 조성하고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초록바위 예술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을 시작으로 6월에는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추모하고 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완공했다.

이곳 녹두관에는 지난 23년간 잠들 곳을 찾지 못해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영구 안장됐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완산도서관 별관을 리모델링해 동학 관련 콘텐츠로 채운 홍보 · 교육관도 조성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